

제十二장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

참교회와 원수에 대한 표상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한 너인이 있어 해를 옷입듯하고 달이 그 발아래 있고 그 머리에 열두별로 만든 면류관을 썼더라 이 너인이 아이를 배어 해산할 때가 되매 압하서 애써 부르지 못할 때에 하늘에서 또한 다른 큰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뿔이 있어 머리가 닢곱이오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닢곱 면류관을 썼는데 그 뿔리가 하늘별 三분의一을 쓸어다가 싸에 던지더라 뿔이 해산할 너인압 해서 해산하기를 기다려 그 아이를 삼키고저하더니 너인이 아이를 나중매 곳 남 자라 장차 철장으로 만장을 다스릴자니 그 아이를 하나님압파 그 보좌압호르를 려가더라 그 너인이 도망하야 팡야로 가매 하나님압 저를 위하야 예비하신곳이 거기 있으니 一천二百六十일동안 거커서 양육을 받느니라」

본장의 묵시는 『요한』의 넷째변으로 바든 묵시이니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그의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예언의 맨마지막것이다。 그런데 본장의 묵시는 모든 묵시가운데도 가장 신기하고 놀라운것이라고 할수있으니 곳 진리와 사악, 그리스도와 『사단』사이의 싸움이 전개되는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의 어찌케 될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이 목서가운데서 김혼뜻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요한』은 이 목서가운데서 두가지 큰 이적을 보았나니 하나는 이상한 녀인의 이적, 이요 하나는 크고 붉은 룡의 이적이다. 그러면 먼저 그 녀인의 이적은 무엇을 표상한 것인가? 성경에는 정절이 있는 녀인은 참교회를 대표하고 음행하는 녀인은 배도한 교회를 대표하여 말하였다. 빌립스대 「내가 아름답고 현숙한 너자를 『시온』의 딸로 비유하라」 (렐六〇二) 영문성경 「내가 이미 너희를 한 지아비에게 중매하였노니 정절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고자 함이로다」 (고후十一〇二) 하였으며 또한 성경 여러곳에 그리스도를 가리쳐 신앙이라 하고 교회를 가리쳐 신부라 하였으니 여기에 말한 이 상한 녀인도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 녀인은 해를 웃입듯하고 달이 그 발아래 있고 그 머리에 열두별로 만 든 면류관을 썼다. 그 해와 달과 별은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밝히 증명하는 복음 곧 신앙은 해로 표상하기에 가장 적당하니 그리스도께서는 의의 해비 치 되시느니라이다. (누一〇七十八참고) 그리고 달은 해비출 바다 반사하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상적으로 나타내든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를 의미하기에 합당하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참제물이 되사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 제도는 폐한바 되었다. 그러므로 녀인(교회)은 구약을 표상하는 달을 그 발아래 밟고 섰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의 대에 있는 우리도 구원의 경륜을 온전히 깨닫기 위하여 구약의 모든 규례와 제사제 도에 대하여서 충분히 연구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다. 그 달이 비록 녀인의 발아래 있

으되 오이러 비출 발하고 있지안는가? 녀인이 머리에 열두별로 만든 면류관을 쓴것 은 교회가 승리를 얻든 표상인바 열두별은 구약시대 교회에 있어서는 十二지파를 표 사할수 있고 신약시대 교회에 있어서는 十二사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녀인이 아이를 배어 해산할때가 되매 암하서 애써 부르짖을때에 하늘에서 한 다 른 이적 크고 붉은 룡이 나타났다. 구약시대의 말기에 처한 교회는 『페 시아』의 탄생을 심히 갈망하고 있 었다. 이는 저희가 일찍이 하나님 을 기억하고 죄가운데 타락하여 저 의의 종교적 중심지가 되는 『예루 살렘』과 쓰는 저이 민족의 쿠권을 몰도다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정부당하야 이것을 회복하고자 하 는 마음이 간절하였기 때문이다.



인녀는하상표들교회

녀인이 해산할때가 되었다함은 곧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탄생하실때가 가까운 시기를 나타내다. 그 때에 한 큰 붉은 룡이 나타났으니 그 룡은 머리가 날굽이요 꼬리가 열인데 꼬리 꼬리에 날굽 면류관을 썼다. 다니엘서七장에 보면 열셋가진 증성이 있는데 이를 『노마』나타로 해석한다. 그런데 본장에 나타나는 붉은 룡도 그 표상이 다니엘서七장에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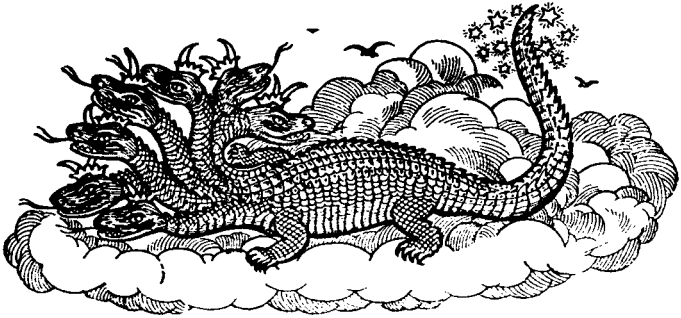
는 넷재증성과 비슷한 점이 많음으로 이것도 역시 『로마』로 해석한다. 그러나 북은 룡으로 표상하였은즉 피흘리는일 즉 학살과 전쟁을 조하하든 다신교 『로마』를 상징(象徴)하기에 적당하다. 그리고 룡의 닐콥머리에 대하여는 『로마』성을 이른 닐콥 적은산을 표상할이라 해석하기도 하고 『로마』력사에 나타난 닐콥가지 정치(政治)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한 어원이들은 교회를 압박하는 『로마』관도에 포함된 여러 나라와 세력 곳 『애굽』, 『앗수리아』, 『바빌로니아』, 『페데·파사』, 『그리시아』, 다신교 『로마』, 『로마』 『로마』의 닐콥가지라 해석하기도 한다.

이 룡이 그 쇠리로써 하늘별 三분의一을 싸에 던졌으니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 대하여는 달리 해석하는이도 있으나 우리의 생각하는대로는 이리케 해석하는것이 옳을줄로 안다. 우리가 이미 八장에서 연구한대로 별은 통솔권을 가진 대장이나 닐콥을 표상하였다. 그런즉 여기 말한 하늘별도 어색한 통치자를 표상한것으로 해석할수 있는데 예수께서 탄생하실 시기가 림박한 당시 또는 『로마』나라가 이리날 당시의 『유대』국의 통치권은 닐콥과 제사장과 『산히드린』의회의 세 기관으로 나누어 있었다. 그러튼것이 『로마』의 세력이 『유대』에 미치면서 닐콥의 통치권은 고만 『로마』에 개 속한바 되었으니 『유대』의 통치권의 三분의一이 싸에 던진바 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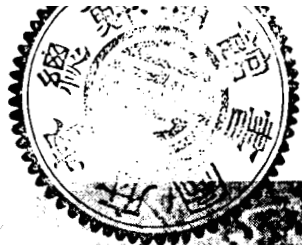
『로마』 해산할 내인압해서 해산하기를 기다려 그 아이를 삼키고져 하더니 내인이 아이를 나흐매 곳 남자라 철장으로 만장을 다스릴자니 그 아이를 하나님압과 그 보좌 압으로 올려가더라」이 아이는 두말할것 업시 예수 그리스도시다. (시二〇七—九, 엠—

○二十, 廿一참고) 예수께서 탄생하실즈음에 『로마』의 세력은 벌써 『유대』나라를 완전히 정복하였었나니 「가이사·아구스토」의 호전령은 예수의 육신의부 모되는 『요셉』과 『마리아』를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하였 다. 룡이 아이를 삼키고저한데 대하여는 마태二장에 기록된바 『해롯』이 아기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베들레헴』부근의 두살이 하의 모든 아기를 죽인 사실과 『로마』나라에서 파견한 『유대』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게한 사실로 잘 증명할 수있다. 그와가리 『해롯』은 예수를 죽이고저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사 구원의 사임을 마치게 하시고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가운대서 살리사 하나님의 보좌우편에 안게하였다.

예수께서 승천하신후로 교회는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였다. 먼저는 『유대』인의 핍박, 다음에는 다신교 『로마』의 핍박, 그다음에는 『로마』의 『로마』의 핍박이다. 그리하여 교회는 불가 불 도망하야 핍박으로 갈수밖에 업섯다. 교회가 거기에서 一천 二백六十年동안 양육을 받았는데 이 기간이 법왕권의 전황시대인 3월五三八년으로 一七九八년까지인바 전장三절의 「마흔두 달」과 다니엘서七章二十五절의 「한새 두새 반새」와 마찬가지로 기간이다.



룡은 북은 하상표를 『마로』교신다



김 뜻 어 내 서 에 늘 하 가 하 루 의 그 와 『벨스루』

그리스도와『사단』과의싸움의 시작

「하늘에서 싸움이 잇으니 『미가엘』이 자귀의 사자를 거느리고 룬으로 더부러 싸울새 룬도 자귀의 사자를 거느리고 싸와 이기지못하야 다시 하늘에서 저희가 잇을곳을 엿지못한지라 큰 룬이 내어쫓기니 옛 배암이라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니 온천하를 썩이는자라 싸로 내어쫓기매 그 사자도 썩한 내어쫓기니라」

우리는 본장에 두가지의 룬이 기재된것을 주의하여야 할것이다. 이미 연구한바 三절四절의 북은 룬은 다신교 『로마』를 표상한것이오 七절九절에 말한 룬은 『사단』을 가리 첫으니 하늘의 영광스러운 지위에 잇는 『루스벨』 천사이다.

본장 一절로 六절까지에는 예수 탄생하실때로부터 一七九八년까지에 잇을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일에 대하여 기재되었는데 七절부터는 다시 옛적으로 도라가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싸움의 시초를 말하였으니 이는 『사단』이 교회를 해하고자 애쓰는 근본리유를 알리기 위한인듯 하다. 오랜 옛적에 하늘에서 『루스벨』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천사장 『미가엘』을 시귀하야 반역하는 일을 이르키매 『미가엘』이 그 사자를 거느리고 나아가 싸와 저희를 치니 『루스벨』과 그 사자들이 하늘에서 잇을곳을 엿지 못하고 이 세상으로 내어쫓기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세상을 썩어 자귀를 복종하게 하고 이 세상을 영구히 자귀의 지배아래 두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속하야 죄악가운데 빠진 이 세상을 그저 바라두실수 없으므로 이 세상을 구

원하시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는 천히 이 세상에 림하시 『사단』의 꾀계를 췌트리려 하섯다。 그런즉 『사단』이 일즉부터 자귀의 큰 대적인 『미가엘』과 그의 교회와 또는 그의 결성을 췌트리려고 할 것은 무론이다。 이리하여 태초부터 잇는 『미가엘』과 『루스벨』사이의 싸움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하여 신령한 가운데 진행되고 잇는것이다。

하늘의 승전가

「내가 드르니 하늘에서 큰소리가 잇어 가르대 이 재 우리 하나님과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도다 대개 우리 형제를 참 소하든자가 쫓겨났으니 곳 우리 하나님 압해서 밤 낮 참소하든자라 여러 형제가 어린양의 피와 자귀의 증거하는 도를 힘입어 이기었으니 죽기까지 생명을 앗기지 아니하였도다」^{十一} 그리고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췌와 바다는 화 잇슬진저 대개 마귀가 자귀의 새가 얼마못된줄을 아는고로 크게 분내어 너희게 내려갓다 하더라」



합 저 고 기 삼 례 이 마 는 낮 의 인 너 이 롬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도다」 하였는데 이는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소식이다。 이 노래가 언제 잇었나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혔을때에 이 승리의 노래는 하늘에서 나왔나니 이때는 곳 오래동안 고대하고 바라든 시귀이다。 이 시귀가 이르매 『사단』은 여러 가지 잔학한 방법과 꾀술을 써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훼방하야 그의 정권을 막으려 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때에 그 모든 꾀계는 드러나게 되고 그 모든 속임수단은 헛된대 도라가 승리는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에게 이르렀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든 그새에 이미 허락하신바 밋는자에게 대한 구원이 확실히 성취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밋는자를 사망가운데서 구원하실 권능이 보증되었으며 또한 그새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의 통치권을 어드시고 승리의 개가를 불렀으며 승천하실때에 하늘에서 만왕의 왕의 위임을 어드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때에는 이 모든것을 온전히 거두실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사단』이 새새로 하나님의 보좌압해 가서 참소하는 일을 행하였으나(욘 一〇六—一二, 二〇—一六참고) 그후부터는 아조 쫓겨나서 다시 하늘조정애 나아갈수가 없게되었다。 그리하여 밋는자들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 증거하는 도로 이기었은즉 하늘과 그가운데 거하는자가 즐거히 찬송할것이였다。 그러나 췌와 바다는 화가 잇을것이니, 대개 마귀가 자귀의 새가 얼마못되는줄을 아는고로 크게 분내어 내려왔음이다。

『사단』의 꾀계를 췌트리려

사이녀인을도아줌

「^{十一}롱이 자기자셔로 내어쫓긴것을 보고 남자를 나혼 녀인을 핍박하는지라 그 녀인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어 광야에 있는 그곳으로 날라가 배암의 나출 피하야 거기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게 하며 배암이^{十一} 녀인의 뒤에서 그 입으로 불을 토하기를 강가리하야 녀인을 친몰케 하려하되 사이^{十一} 녀인을도아 그 입을 버려 롱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우에 말한바와 가리 『루스벨』 곳 『사단』은 하늘에서 내어쫓김을 바다 분내어 이 세상으로 내려왔다. 그리고는 남자를 나혼 녀인 즉 교회를 핍박할새 붉은 큰 롱으로 표상한 『로마』의 권세를 조종하야 핍박하기를 시작하였다. 그 핍박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어 시작되었으니 『스데반』은 곳 그리스도교회의 처음순교자이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핍박은 도리어 그리스도의 도립들은 세상에 전파하는데 유조한 기회가 되었다. 그로부터 그리스도교회의 세력은 더욱 창대하여져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부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에 『사단』은 그 방침을 고쳐어 그리스도인 핍박의 손을 『유대』교인에게서 다신교인에게로 옮기었다. 핍박의 형세는 점점 강렬하여졌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야 핍박을 받든가 사람을 순종함으로 그 핍박을 면하든가 그들가운데 하나를 택할수밖에 입었다. 여호와나 『주피터』(Jupiter—로마)의 주신)나? 예수나 『아폴로』(Apollo—그대 『그리시아』의신)나? 그리스도나 『다이아나』(Diana—

『로마』신화에 나타나는 헤의노신)나? 이 질문은 저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것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온갖 핍박을 단마음으로 당하였다. 그리고 『네로』(Nero) 황제당시와 『다이오클레시안』(Diocletianus) 황제 당시의 그리스도인 핍박은 가장 처참 하였나니 혹 목비침을 당하고 혹 십자가에 못박히고 혹 사오나운 개에게 불리워죽고 혹 산채로 불사로아 죽임을 밧고 혹 사람 축몰이 되기도 하였다. 그뿐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오살(鷹殺)되고 도륙 당한것은 이로 말할수도 업는것이다. 이와가리 『사단』은 다신교 『로마』의 세력을 리용하야 교회를 심히 박해 하였으나三世기이후로는 다시 그 핍박의 세력은 전환되었다. 『사단』의 세력은 마침내 교회의내부에 드리와 소위 교권(敎權)이라는것이 생기고 정치와 교회가 결합하야 참하나님의 백성 참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였나니 이로부터 一천二백六十年간의 암흑시대가 이르게 된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안코 보호하야 주셨다. 「큰 독수리의 두날개」라는 말은 출애굽기十九장四절과 신명기三十二장十一절과 또는 이사야六十三장九절의 말씀과를 대조할때에 하나님께서 어찌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견지시는 큰뜻을 나타낸다. 과연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삼기를 날개우에 업는것처럼 자기를 순종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는것이다. 녀인은 그 날개로 말미암아 광야로 날라가 거기서 배암 곳 『사단』의 나출 피하였다. 여기말한 「한때 두때 반때」도 본장六절 설명에 말한바와 가리 암흑시대 곳 법왕권의 전횡시대를 가리친인바 어떤 성경에는 이것을 「一년 二년 반년

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였으니 三년받은 곳 마흔 두달이오 마흔두달은 곳 一천二백六十일이므로 예언적 계산법으로 一천二백六十일이 된다. 이동안에 하나님을 피박을 써 쓰는 백성들은 천주교회의 피박을 피하여 김혼산중이나 인천드림 들이나 골가튼대 거쳐하였을 가리치기에 적당한 말이다. 특별히 중세기 이후로 『왈덴스』(Waldenses) 신교와 『휴게노』(Huguenots) 신교와 『알비젠스』(Albigenses) 신교를 천주교회의 피박을 피하여 『알프스』산중에 숨어 살면서 그 신앙을 지키어 왔나니 지금도 그들의 유적을 여러 곳에서 차차볼수가 있다. 한곳에는 큰 굴이 있으니 풍우한서에 아모 넘려가 업스며 능히 三천명의 사람을 용납할수 있는데 굴입히는 큰 산이 막히어 있어 굴로 통행하는 사람을 박개서는 알수가 업게 되었으며 또한 굴로 가는길이 매우 소삼하여 보통 사람은 거기에 굴이 잇는줄도 알수가 업는리이라 한다. 이 골가튼대서 하나님의 진리를 써 쓰는 만혼 무리가 오래동안 불편한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연구하기와 성경을 벗기기를 부즈런히 하였다.

十五절에는 배암이 너인을 침몰케 하라고 그 입으로 불을 강가리 토하였으나 씨이 너인을 도았다는 말이 잇는바 이는 압혹시대동안에 『사단』이 하나님의 참백성을 얼마나 핍박할것을 표시한것으로 배암이 입으로 토한 불은 곳 하나님을 백성을 핍박한 다수한 사람을 대표하였고 씨는 『아메리카』의 신대륙을 의미하는것이니 성경상 예언에 바디나 불은 언젠든지 다수한 인구를 표상하고 씨는 인구가 업는 황무한 곳을 뜻하

는것이다. 우리는 씨이 너인을 도았다는데 대하여 좀더 생각하여 보자. 법왕권의 전횡시대로 말하면 법왕 『피우스』六世 (Pius 6)가 불란서 대장 『베리어』(Berthier)에게 사로잡혀어간 一七九八년까지에 계속되는것인데 실제상의 법왕권의 박해는 그때까지 미치지 못하였다. 주재서는 그 약한자를 위하여 환난의 시기를 얼마쯤 단축시키었다. 여기판한 두가지 중요한 사실이 잇으니 첫째는 종교개혁운동이 이러남을 써라 구라피 렬국의 주권자들 가운데서 개신교에 대한 리해를 가지는이가 만하집이오 둘재는 압박받는 신교도를 위하여 신대륙이 발견된것이다. 구라피 렬국의 주권자들은 저이 백성 가운데서 가장 선량하고 양심을 써라 행하는자들이 고국을 써나 수록 수만리의 『아메리카』를 차자가는것을 볼때에 일변 동정심도 나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국책상으로 보더라도 저희를 본국에 머물러 잇게하는것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지리 나황 『마리아 • 데레사』 (Maria Theresa)가 一七七六년에 신교도압박금지령을 발하고 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메리카』의 연합식민지는 독립선언을 발하고 신교자유의 강령을 세우게 되었다. 그러므로 미국은 압박받는 신교도의 다시 업는 피란처가 된것이다. 미국 독립전으로 말할지라도 『아메리카』를 개척하여 노흔 사람들은 곳 구라피에서 압박받는 천주교도의 무리나 저희가 고국과 본토를 버리고 거처 불결을 헛치고 『아메리카』의 낯서른 천지에 이르러 가운 간고를 맛보기는 오직 자유의 신앙생활을 누리라는 본의이였다. 그러므로 신대륙의 발견, 미국의 독립은 진실로 너인을 도아준바가 되었다.

마지막 교회의 특징

「[†] 룡이 너인에게 분노하야 도라가서 그의 남은자손으로 더부러 싸우니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바는 자라」

법왕권시대가 마치는 동시에 하나님께 참배성에게 대한 핍박도 마쳐질 줄로 생각하기 쉬우나 전연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차별이 온세상에 전파되어 진리의 밝은 비초로 말미암아 모든 거짓 것과 그릇된 것이 드러나게 되며 만혼사람이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기에 이르르면 『사단』은 다시 본내어 너인의 남은자손으로 더부러 싸울 것이다. 남은 자손이란 무엇이뇨 곳 마지막 자손, 즉 세상 스레 잇을 마지막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마지막 교회의 특징은 예언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바는 것」이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 19 〇 十참고) 이 두가지 특징은 특별히 『사단』의 공격하는 표적이 될 것이니 마지막 교회는 분명히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교회는 최후까지 싸우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교회이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처하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언의 신을 바는 하나님의 남은자손들은 이때에 잇어서 주의 맞기신 마지막 사명에 대하여 더욱 절실한 깨달음과 결심이 잇어야 하겠다. 『사단』은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려한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가리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차즈며 댁하신자라도 미혹하게 할수만 잇으면 하려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존절하고 싸어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이다.